

art

IN CULTURE

special feature

한국 사진의 선구자 임응식

emerging artist 윤애영

world art 런던 특별전 홀로코스트

column 이태호의 문화 가로지르기

2001·3

Emerging Art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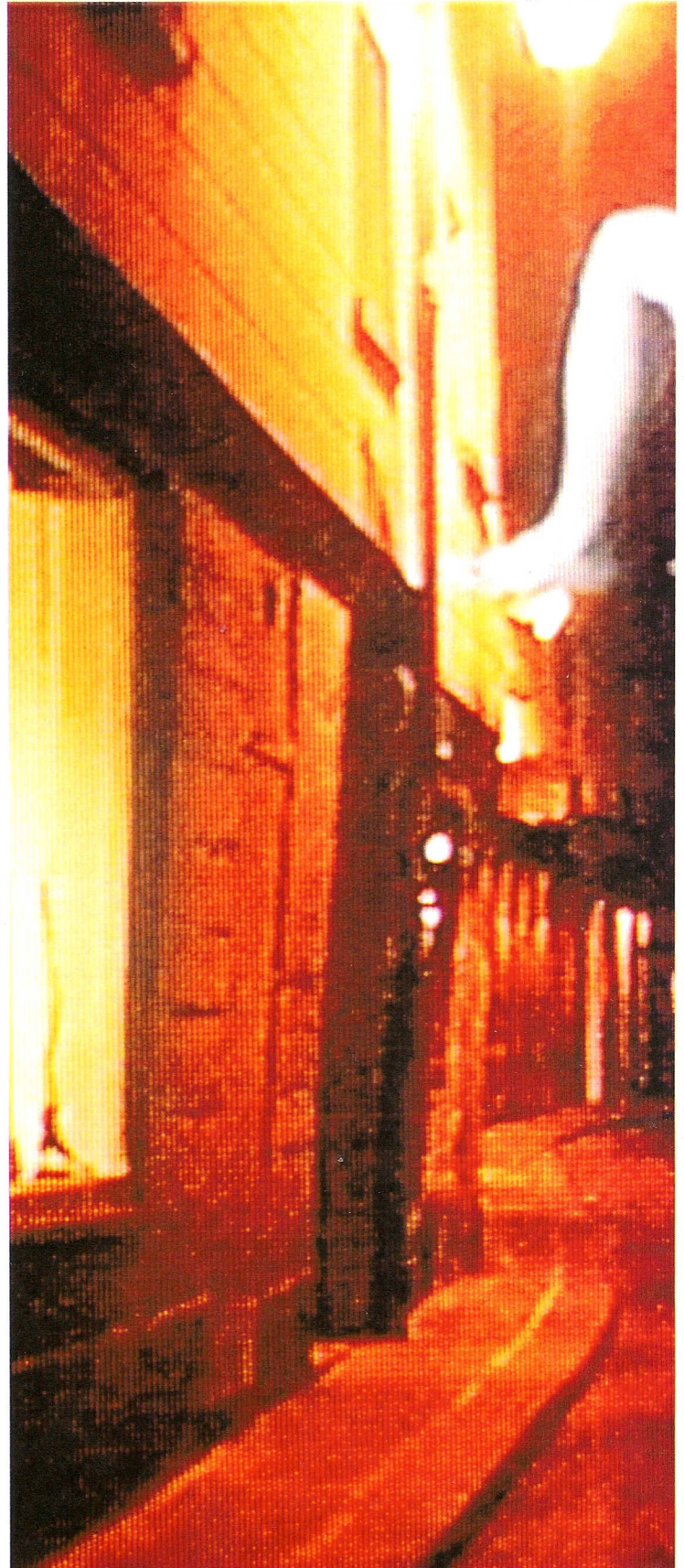
윤애영

AIYOUNG YUN

윤애영은 94년부터 조용신과 함께 '조&윤'의 이름으로 비디오를 동원한 멀티미디어 설치 작업을 하다가 최근 단독 작업을 시작한 재블 작가다. '조&윤' 공동 작업에서는 주로 인간 존재의 한계에 저항하는 고뇌에 찬 육체의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윤애영은 단독 작업의 결과물로 <심연>과 <교차>를 선보였다. 재블 평론가 김애령은 이 작업을 꿈에 대한 관심으로 읽는다. 단일한 의식적 공간이 아닌 수많은 무의식적 공간을 표현함으로써 닫힌 공간으로부터 탈출을 꿈꾸는 인간의 모습을 비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또한 멀티미디어 작업을 통해 관객과의 적극적 소통을 모색하는 점도 작업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덧붙인다. 파리 제8대학 교수인 장 폴 파르지에는 윤애영이 '조&윤'의 작업에서 단독 작업으로 이행하는 과정 중에 목격한 '빈 자리'를 주제로 작업해 왔으며, 그것은 존재의 확인 과정과 다르지 않은 것임을 지적한다. 그 결과 윤애영은 정신 세계의 진정한 형상화 작업을 이루어 내었으며, 존재는 육신도 영혼도 아닌 이들의 교차라는 해답으로 귀착된다.

<심연> 입체 비디오 설치 2000

윤애영은 이화여대 서양화과와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파리 에콜 데 보자르) 및 파리 제8대학 조형예술학과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쳤다. 그 동안 파리 국제아트페어 피악(FIAC), 제2회 광주비엔날레, <한·일 현대미술전>, 제10회 인터내셔널 비디오 & 테크놀로지 아트 페스티벌 등 다수의 국제전에 참가했으며, 파리·런던·마드리드 등에서 5회의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현재 랑스의 레 피유 뒤 칼베르 갤러리(Galerie Les Filles du calvaire) 전속 작가로 활동 중이다.





AIYOUNG YUN

몽상과 멀티미디어

글 | 김애령 | 미술평론가

94년부터 본격적으로 비디오를 동원한 설치와 퍼포먼스를 '조&윤'의 공동 작업으로 발표해 온 윤애영은 최근 단독 작업을 시작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간의 작업에서 나타났던 실존주의적 담론은 보다 시적인 몽상 속에 희석되어, 관객과 나누는 시공 체험으로 전개된다.

'조&윤' 작업에서는 인간 존재의 한계에 저항하는 고뇌에 찬 육체의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초기 비디오 설치 작품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1994)에 등장한 걸어가는 나체와 고통스런 얼굴은 여러 해 동안 '조&윤' 작품의 주된 이미지를 형성했다. 쓰러지면 일어나 다시 걸어도 제자리걸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벌거숭이 인간의 이미지가 98년에 발표된 <흔적>에서는 인간 한계에 대해 더욱 분명한 메시지로 표현되었다. 돌덩어리에 투영된 나신은 열심히 전진하고자 하지만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의 표면을 벗어나지 못해 마치 돌에 갇힌 듯 보인다.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행위는 시지프스의 신화에 버금가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비극성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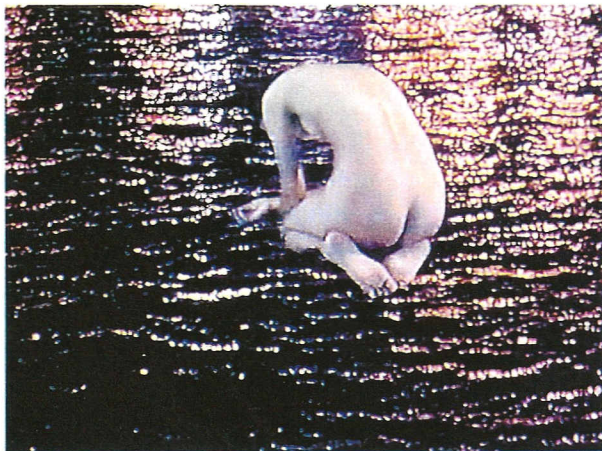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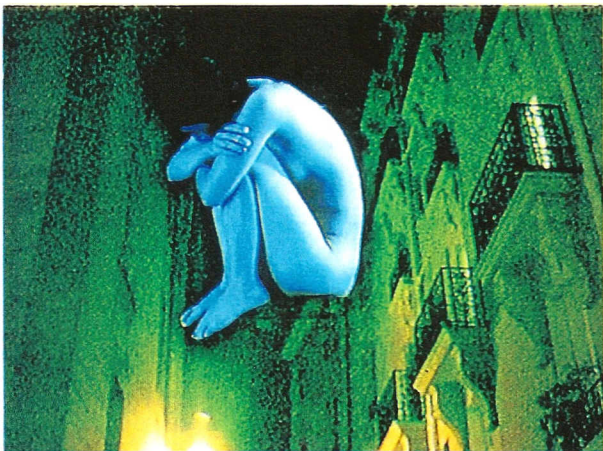
그런가하면 일군의 나체들이 정해진 틀이나 <타임큐브> (1998), 벗어날 수 없는 사슬 관계 <<균중> (1998) 속에서 몸부림치는 장면도 있고, <저항하는 인간은 아름답다> (1995)나 <코마(Coma)> (1995) 등의 비디오 퍼포먼스에서는 삶의 공간적·시간적 한계를 거부 혹은 수궁하는 모습을 작가가 직접 전라로 연기했다. <침대> (1995)의 웅크려 누워 뒤척이는 나체와 <만드레이크의 노래> (1999)에서 인간의 숙명을 저주하는 식물 '만드레이크'를 의인화한 나체는 <심연> (2000)에서 도시에 안주하거나 즐기지 못하며 떠도는 이방인을 거듭 보여주고 있다. 입체 영상으로 처리된 <심연>의 나체는 배경을 이루는 도시 풍경에서 더욱 격리되어 위치를 설정할 수 없는 공간을 떠돈다.

원초적 인격의 표상으로서의 나체

여기 등장하는 벌거벗은 육체들은 이상화된 인간이나 욕망의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 개성이나 사회적 신분이 제거된 원초적 인격의 표상으로서의 나체인 셈이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만의 꿈과 생각에 잠겨 있으며, 영상을 동반하는 거친 숨소리나 신음과 심장의 고동은 타인의 시선을 향해 제공된 나체가 아님을 더욱 분명히 한다. 이런 나체 이미지는 계속해서 윤애영 작업의 재료가 되고 있으나 기억이나 꿈·몽상 혹은 무의식 같은 현실과 평행한 다른 세계 속에서 등장한다.

윤애영의 꿈에 대한 관심은 새삼스런 것이 아니다. 만질 수 없지만 생생한 경험이고 한 번 깨어나면 다시 갈 수 없는 꿈의 세계는 오래 전부터 그를 사로잡았다. 꿈을 포착하는 방법으로 깨어나는 즉시 메모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가 꿈에 집착하는 것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속을 헤엄치는 신기한 경험과 놀라운 이미지들 때문이라기보다는 인간은 동시에 여러 공간을 산다는 암시가 꿈속에 담겨 있기 때문인 듯 싶다. 꿈을 통해서 작가는 '지금 여기'가 존재 방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현실과 평행한 혹은 현실과 공명하는 다른 세계들을 예감하는 것이다. 편재에 대한 몽상은 자기 확대의 그것이라기보다는 여러 시공 속에 분리되어 어디에서나 불완전하고, 어디서나 이방인이라는 의식 상황과 관련이 있다. 비디오는 이런 꿈을 시각화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동원되며, 꿈 특유의 이미지 창출 수법인 연상 작용·몽타주·중력과 시간의 법칙 초월이 그의 어법이 되었다.

윤애영에게 있어 도약판이 된 <교차(Intersection)>는 2000년 2월 마드리드 아트페어 아르코(ARCO)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그의 새로운 방향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었다. 안개긴 숲,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 수중 풍경이 중첩되는 프로젝션을 배경으로 6개의 투명한 스크린에 즐겁게 뛰노는 벌거벗은 아이의 영상이 투사된다. 중첩되는 영상, 환경과 인물의 분리와 교차, 흑백의 영상 등은 현실과 평행한 어떤 세계, 현실의 무게가 없는 세계를 시사한다. 윤애영의 비디오 영상들은 현실에서 채집한 것이지만, 작가와 현실 세계를 매개하기보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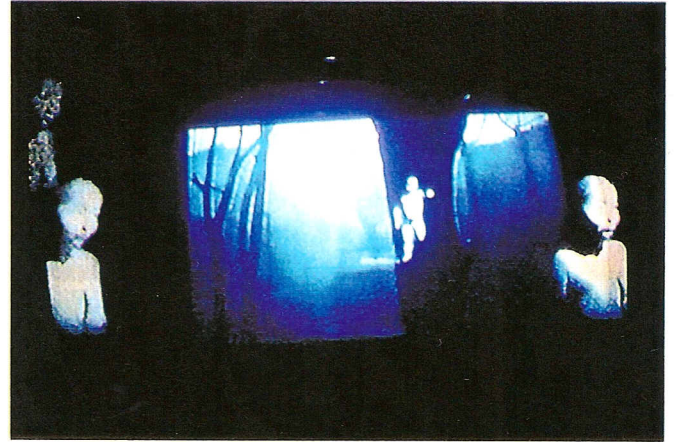


<심연> 입체 비디오 설치 2000

오른쪽 페이지
<교차> 비디오 설치 2000

현실과 평행한 비물질의 세계를 가시화하기 위해 동원하는 파편들에 불과하다. 마치 꿈이 현실을 단서로 구성되듯이,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영상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미 다른 작품에서 쓰여지기도 한 단편들이(아이의 이미지는 <잃어버린 시간>에서 따왔다) 새롭게 조합되고, 또 다른 영상과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그것은 현장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완결된 환영(illusion)의 공간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유령스러운 빛과 그림자들이 관객과 교차하기를 기다리는 열린 상황이라 하겠다.

<3차원의 파리전>(2000. 10. 3~12. 31 파리 까르나발레 미술관)에 출품한 <심연(Abysses)>은 파리의 밤 풍경 위를 떠도는 남녀의 나체를 보여주는 모니터를 드립통 속에 넣어 놓고 관객이 통 속을 들여다보도록 한 작품이다. 일체 안경을 끼고 보면 허공을 떠도는 혼령같이 그 하얀 색 나체는 선명한 입체가 되어 배경에서 더욱 격리된다. 작가는 "단한 공간으로부터의 탈출과 자유에 대



윤애영은 현실의 시간뿐 아니라 기억의 시간, 심리적인 시간, 잃어버린 시간들을 움직임과 소리를 통하여 작업하면서 관객과 영상이 "같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결국 작품과 관객, 전시 공간 자체가 하나가 되어 전시를 통해 제시한 시간 속으로의 여행에 동참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한 일종의 집착을 상징한다."고 제작 의도를 피력함으로써 과거의 실존주의적 어휘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기실 나체 영상들은 <만드레이크의 노래>나 <침대>, 혹은 '조&윤'의 여러 퍼포먼스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시된 것 못지 않게 보는 행위가 고려된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작가의 극히 주관적 경험을 제시하면서 관객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새롭다. 관객이 통 속을 들여다볼 때, 그 속에 펼쳐지는 풍경의 지평은 관객이 서 있는 현실의 지평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 속의 도시를 현실의 연장으로 볼 수 없게 되며, 관객은 마치 부유하는 듯한 위치에 있게 된다. 제목이 말하는 '심연'은 어느 공간에도 속하지 못하는 인물의 혼수 상태 같은 의식이기도 하지만, 관객의 시점에서는 소설점을 넘어 무한히 계속되는 하나의 도시이기도 하다.

멀티미디어를 통한 관객과의 만남

관객과의 만남을 위한 설치는 윤애영의 작업에 나타난 새로운 국면이다. 어디에서나 느끼는 이방인으로서의 소외감, 한계 지워진 존재의 고독, 현실과 평행한 세계를 사는 분리된 '나'들, 남과 나눌 수 없는 몽상의 시공을 전시라는 상황 속에 환기시켜 놓고 타자와의 새로운 관계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것은 소외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2001년 10월 바르셀로나의 메트로놈 재단 초대 개인전을 위시하여, 2003년까지 예정된 스페인의 알리칸테 대학 미술관과 러시아의 세인트 피터스부르크 국립 현대미술관의 개인전을 비롯, 프랑스 내의 여러 멀티미디어 아트를 위한 장소에서 예정된 4~5개의 개인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모두 관객과 함께 꾸기 위한 꿈을 위한 영상과 소리 설치 작업들이다. 부분적으로는

작가 개인의 꿈과 몽상을 재현하는 것도 있으나 앞서 지적했듯이 개개의 영상보다는 그것이 조합되고, 교차하고, 어긋나는 방식이 하나의 언어가 된다. 그러한 언어 구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비디오·레이저·입체 영상·디지털 편집 등의 테크놀러지이다.

멀티미디어 작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지간에 시간 작업이며, 작업 과정 상 시간에 대한 의식이 불가피하다. 회화나 사진 같은 이미지에서도 시간을 읽을 수 있으나 그것은 늘 공시적이며 상징적으로 제시된다. 멀티미디어 작품은 통시적이며, 작업 과정에서 시간은 저장되고 분해되고 재조립되며, 반복하고 역행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작업을 기다리는 재료이다. 윤애영은 현실의 시간뿐 아니라 기억의 시간, 심리적인 시간, 잃어버린 시간들을 움직임과 소리를 통하여 작업하면서 관객과 영상이 "같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결국 작품과 관객, 전시 공간 자체가 하나가 되어 전시를 통해 제시한 시간 속으로의 여행에 동참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윤애영에게 멀티미디어는 그녀가 평면 작업에서 만족할 수 없었던 재료의 투명성과 통시적 서술성, 시간의 울림을 작업 속에 포함시키려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수단이었다. 그것은 이제 전시라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녀가 예감하고 몽상하는 동시적인 세계들을 객관화하는 통로가 되었다. 사실과 가상의 경험들을 교차시키는 방식이 테크놀러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영상 테크놀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도 하다. 멀티미디어 작업이 기술과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나름대로 극복해 가면서, 90년대 중반부터 열심히 뛰어나고 실험하고 만들어 본 탄탄한 경험 속에서 윤애영은 한 작가로서의 개화를 기다리고 있다. ㉓

AIYOUNG YUN

떠도는 영혼

글 | 장 폴 파르지에(Jean Paul Fargier) | 파리 제8대학 영상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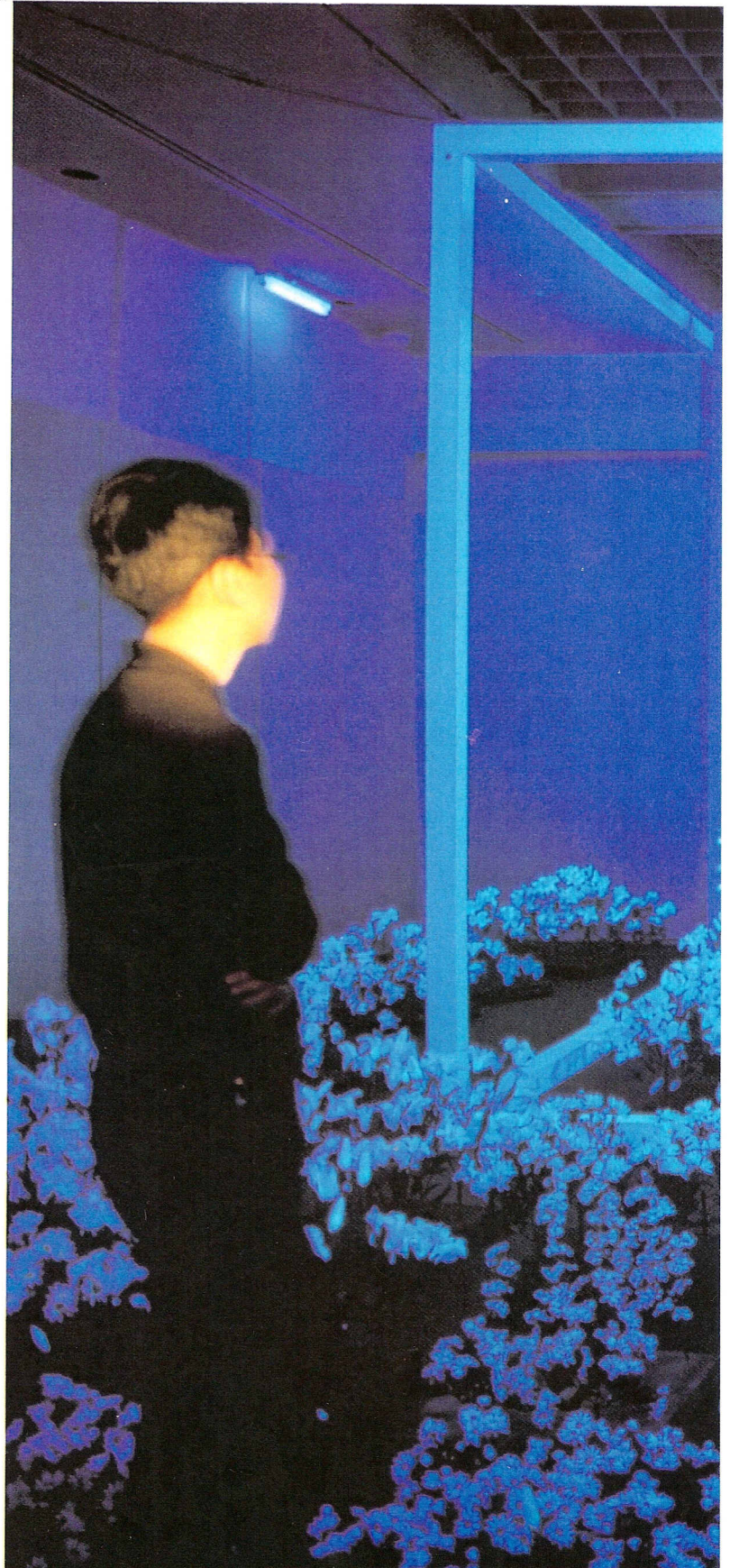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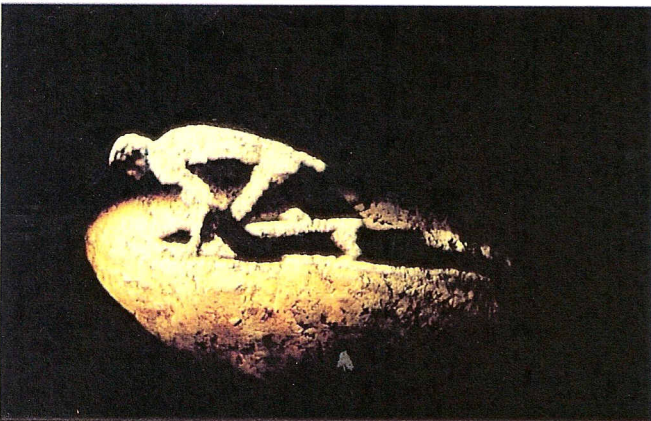
그들은 두 사람이었다. '조&윤'이라 불리던, 그 두 이름 가운데 어느 것이 여자 이름이고 남자 이름인지 모른 채 우린 그냥 그렇게 부르는데 익숙해졌다. "여자가 '조' 예요?" "아니예요, '윤' 이에요!" "아, 그래요..."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더 쉬워졌다. 이제 윤과 조가 각각 혼자서 작품 활동을 한다. 이 '&(공동)' 부호가 없어지고 멤버 각각이 원자로 분해되어 그들의 공동 작업은 없어졌다. 새로운 출발이다. 그러나 '&' 부호 자리가 비어 있을 뿐 제로가 된 것은 아니다.

3차원 세계에 서 있는 윤애영은 최근 작품에서 이 빈 자리를 주제로 삼아 표현했다. 이 빈 자리의 공허함은 <심연>이라는 작품의 타이틀에서부터 이미 아주 강렬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 깊은 바닥의 알 수 없는 깊이를 가늠해야 한다. 200리터 짜리 통, 뭐 그다지 대단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것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윤애영은 그 작품을 작은 찻잔을 사용해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통 밑에 가려진 빛과 어둠, 작품 영상까지의 빈 공간과 공허함이 그것을 표현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 통은 무심코 지나가려는 관람객의 주의를 끌고 있다.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게 하는데, 몸을 굽혀 저 밑바닥에 잠들어 있는 신비하고 아주 특수한 영상을 보는 동안 관람객들은 그 깊이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게 된다.

입체 안경을 코에 걸고 보면 보이는 것은 또 무엇인가? 또 다른 두 개의 인체가 파리 시내 위를 떠다니고 있다.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어딘지 모르겠어 걸맞지 않지만 그냥 그대로이기를 주장하는 묘한 현상. 충격적인 기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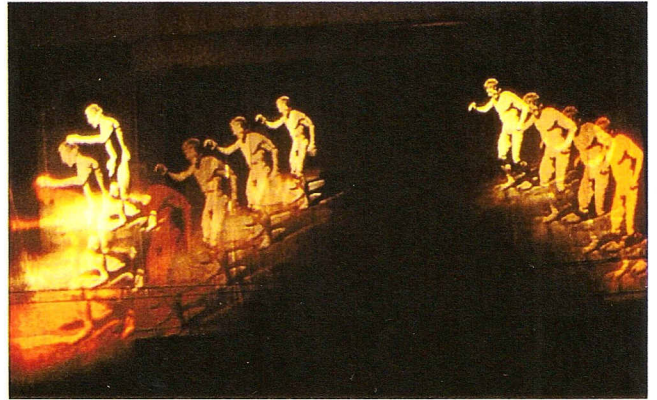
오른쪽 · 조&윤 <타임 큐브> 입체 비디오 설치 1998
아래 · 조&윤 <혼적> 비디오 설치 1998





영혼이란 존재의 회귀

남자와 여자가 차례차례 세느강과 파리 골목골목을 기묘한 방식으로 맴돌고 있다. 아주 불안정한 모습이다. 인물들은 최소한 배경과 조화를 이루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은 채, 있는 모습 그 자체로 세상이라는 배경 위에 자신들의 존재를 새긴다. 그들의 자세나 몸집 색다른 빛들은 그들을 조화롭게 꾸며진 배경 속에 덧붙여진 거북한 군더더기처럼 보이게 할 뿐, 우리들에게 익숙한 여느 행인들의 모습은 아니다. 현실이라는 배경 위에 그들이 실제로 날아오른다는 인상을 주고자 노력한 흔적은 전혀 없고 단지 입체 비디오를 사용함으로써 빈 자리를 더욱 더 최대한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그것은 육체와 배경이 분리됨으로써 만들어지는 빈 자리인 셈이다. 이 두 이방인의 육체들이 외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같은 영상에 단 한 번도 동시에 같이 등장할 수 없도록 짜여진



세례받지 못한 아기들의 영혼이 간다는 '해소'를 연상시키는, 안개 자욱한 풍경을 배경으로 한

아기들의 모습은 커다란 스크린 앞에 걸린 투명 천 표면에 투사되어 비물질성의 흔적을 다양한 농도로 찍어 낸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몽타주에 의해 다시 분열되는 두 존재는 마치 공허의 침상에서 잠을 자는 듯하다. 심연의 저 끝, 한없이 깊지만 한 심연의 나락에...

이 육체들과 세상 사이에는 무상함만 있는가? 아니다. 잊혀졌던 인물, 바로 영혼이란 존재의 회귀가 있다.

파리라는 도시 위에 덧입혀진 이 육신들은 자신들의 무상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단지 이제부터는 현실 안에서 현재를 함께 했던 그들의 결합 저 너머로 운명이 이어져 나갈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일 뿐이다. 이제 하나의 핵으로 자유로워진 윤애영은 3차원 작품 구성에 대한 주문을 받고(까르나발레 박물관

에서 열리는 <3차원의 파리>라는 단체전에 출품해야 하는 작품의 테마) 무엇보다 먼저 영혼의 상태를 구체화시켜 표현해 내는 데까지 이르렀다. 윤애영이 이번 작품에서 4차원적으로 부각시킨 영혼이란 존재는 어쩌면 육체에 대해 떠벌이는 수많은 언어들로 인해 뒤로 치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몇 십년 전 이래 줄곧 그늘 속에 가려져 있던 그러나 완전히 없애버리지 못했던 존재다.

이번 전시에 마련된 소책자에서 이 작가는 이 <심연>이란 작품을 구상하게 된 의도를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존재의 확인'에 대한 표현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이 존재의 확인이 현실적으로 이 작가에게는 이중적으로 유배당한 느낌으로 혼란스럽게 작용하고 있다. 파리에서도 서울에서도 자신의 안식처를 느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런 연유로 그녀는 자신의 동반자와 함께 이방인이 되어 파리의 하늘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혼이란 육신에 들어 있던 생명이 제로가 된 상태, 즉 영혼이다. 그러나 이렇게 진부한 영혼 해석에 만족한다면 큰 실수다. 이 작품에서 실현해 내고자 하는 것은 정신 세계의 진정한 형상화 작업인 것이다. 3차원으로 구성된 육신들이 판넬화되었고, 이 탈육체화 작업은 일종의 창조적 외형화를 통해서 입체적 영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컴퓨터 몸체들과 도시의 불빛들 사이에 놓인 가능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넓은 간격 안에서 생명의 길이 열리고, 이 길을 통해 섬세한 존재의 감성이 울리는 것을 보게 된다. 존재는 육신도 영혼도 아니며, 그 둘 사이인 것이다.

이중화된 분신과 현실의 창조

바로 이 '그 둘 사이'란 단어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의미를 통해, 손으로 만져 볼 수 없는 현실이 미래 윤애영의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2000년 2월 마드리드의 아르코에서 윤애영이 설치했던 작품 <교차>는 두 개의 구체 형상간의 교전이라는 형식으로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세례받지 못한 아기들의 영혼이 간다는 '해

소'를 연상시키는. 안개 자욱한 풍경을 배경으로 한 아기들의 모습은 커다란 스크린 앞에 걸린 투명 천 표면에 투사되어 비물질성의 흔적을 다양한 농도로 찍어 낸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순간순간 하나의 매체에서 또 다른 매체로 넘어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공백의 자리에서 왔을까. 그들이 밟고 지나가는 풀들은 관람자들의 눈에서만 자랄 뿐이며, 나무들은 연

조운윤 <만드레이크의 노래> 비디오 설치 1998

왼쪽 페이지

위 · 조운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비디오 설치 1994

아래 · 조운윤 <코마> 퍼포먼스 1996

약한 그 풀들을 실제로 건드리지도 못한 채 그 위를 스칠 뿐이며, 아기들은 실제로 숲 속에 있지도 않은 채 숲 속을 달린다. 그들은 모든 현실적 집착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나 그 현실 자체를 창조해 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이중화된 분신을 통해서다.

그 동안 파리에 거주하며 유럽 전역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윤애영은 두 사람이 공동 작업한 작품 유산들을 훌륭하게 잘 유지해나가고 있다. 그녀는 발표 작품들을 통해 지워진 '&' 부호의 빈 자리에서 새로운 불꽃을 밝혀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존재 확인이 윤애영이란 작가 자신의 깊은 곳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 낸 '&' 부호의 획득으로 귀착된 것이다. ㉔